

예비유아교사의 전공별 비인지적 역량과 창의융합역량에 대한 차이 분석

박지영¹, 김용숙^{2*}

¹전 서정대학교 유아교육과, ²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non-cognitive competencies and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ies of prospective infant teachers by major

Ji-Young Park¹, Yong-Sook Kim^{2*}

¹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Former Seojeong University

²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Joongb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유아교사 핵심역량 중 비인지적 역량과 창의융합역량의 전공별 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다. G지역 전문대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2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원변량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예비유아교사 비인지적 역량과 창의융합역량은 전공계열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첫째, 비인지적 역량인 자기관리역량은 유아교육과가 아동보육과와 사회복지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인관계역량은 유아교육과가 아동보육과와 사회복지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창의융합역량은 유아교육과와 아동보육과가 사회복지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예비유아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비인지적 역량과 창의융합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당위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역량을 균형 있게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non-cognitive capabilities of prospective teachers for teaching infants and their creativity convergence competencies. To achieve this goal, a competence survey was conducted on 208 prospective teachers attending private colleges in the G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OVA, and Scheffé's post-hoc comparison analysis on the computer program, SPSS/PC 22.0. As a result of the data analysis, the non-cognitive capabilities and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ies of preliminary school teacher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jor categories. First, the self-management competency, which is a non-cognitive competency, was higher in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an in childcare and social welfare. Second, interpersonal competency was highe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an in the department of childcare and social welfare. Third, the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 was highe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than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justification for strengthening the non-cognitive and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ies in institutions that employ preliminary school teachers for educating infants. This also suggests that we should foster teacher competency in a balanced mann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Keywords : Prospective Infant Teacher, Non-cognitive Competencies, Self-management Competency, Interpersonal Competency, Creativity Convergence Competency

*Corresponding Author : Yong-Sook Kim(Joongbu Univ.)

email: yskim82@joongbu.ac.kr

Received June 20, 2022

Accepted September 2, 2022

Revised July 20, 2022

Published September 30, 2022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교원양성에 목적을 둔 대학은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공헌하는 교사를 양성한다. 역량은 예비유아교사들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필수능력으로서 교사 전문성 진단과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사회적 노력들이 이루어져왔다[1,2].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역할 수행에서 스스로 반성적 성찰과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 증진될 수 있고[3], 이러한 교사역량이 높을수록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4]. 뿐만 아니라 교사의 핵심역량, 교사 전문성,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질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5].

교육부에서도 핵심역량과 관련된 교직인성의 요소로 교직에 대한 열정, 창의력, 반성적 자기개발 및 교직윤리를 제안하였다[6]. 이에 필요한 교사 역량을 광의적 측면에서는 자기관리역량, 의사소통역량, 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협의적 측면에서는 유아이해, 의사소통, 교육과정 운영으로 보고 있다[7-10]. 예비유아교사는 대학의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을 이수하여 초등교사,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등 전공별로 선택한 기초학습능력과 전공역량을 갖춘다. 이러한 기본 자격을 취득하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직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예비유아교사의 핵심역량은 졸업 후 개인적 사회적응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을 통해 다양한 역량 개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K-CESA는 비인지적 역량과 인지적 역량으로 구분된다. 비인지적 역량은 자기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이며, 인지적 역량은 의사소통역량,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종합적 사고역량, 글로벌역량이 포함된다. 예비유아교사의 핵심역량으로 전문성과 철학, 교무 관련 업무, 교사 인성과 인간관계, 수업 및 평가, 안전으로의 진단을 강조하였다[11]. 현직 교사교육에서도 교직인성 및 전문성 개발, 교육과정 운영,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순으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12]는 것은 교사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비인지적 역량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가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에도 다양한 변화와 영향을 주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사 역량을 확인하는 마지막 관문인 교육실습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교수자-학습자와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교수능력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교육기관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및 방임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해 예비유아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교직 적인성 및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교사의 역할이 사회적 변이로 인해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는 자기관리,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력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OECD와 같은 국제기구 연구들에서도 한국 학생들의 지식수준은 높은 반면 비인지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뇌 과학 관련 연구들에서도 창의성이 비인지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며 비인지적 역량 개발과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3]. 다양한 교사양성과정으로 교육과정에서의 일원화는 개선되었으나 비인지적 역량 강화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제기를 통해 교사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 자질, 교사 역할 등의 개인이 지닌 역량에 따라 직무수행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변화되는 사회정책 및 교육시스템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예비유아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전문적 지식, 기술, 태도이며[14], 교사역량강화를 위해 학습자에 대한 이해 역량 강화, 윤리적 책무와 실천 지원, 창의적인 교사양성, 교사의 자기개발 지원을 당면 교육과정로 제시하고 있다[15]. 이들의 공통점은 교사역량 강화 교육의 중요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사양성체제와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 및 초등교육과정에서도 영유아 및 아동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영유아 및 아동의 균형적인 발달을 돕고, 이에 기초하여 창의성을 개발해 주는 데 교육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교사역량이다. 그러므로 현장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넘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창의적인 교사를 요구한다.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사가 창의적인 수업을 개발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창의성을 길러주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행연구로는 대학생의 계열 및 학년별 비인지적 역량 차이 분석에 그쳐있다[16]. K-CESA 인지적 요소보다 비인지적 요소가 창의적 교사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예비유아교사의 교육과정에서 비인지적 요소 강화를 강조하였다[17]. 교사들이 놀이중심교육에서 필요한 교사 역량을 놀이이해, 놀이지원, 관찰력, 환경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18].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비인지적 역량이 놀이성을 지원하고, 이는 창의융합역량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19]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교사의 비인지적 역량과 창의융합역량은 미래교육방향을 결정짓는 놀이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역량이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며 다양한 교사를 양성하는 전공계열, 학과를 고려하여 전공별 차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K-CESA에 기초한 비인지적 역량과 창의융합역량의 전공별 차이를 검증하여 교육의 균형과 조화라는 관점에서 예비유아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는 미래교사의 핵심역량과 창의융합역량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타당한 근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교수자 및 학습자의 핵심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목적 하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 핵심역량(K-CESA) 중 자기관리역량은 전공별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예비유아교사 핵심역량(K-CESA) 중 대인관계역량은 전공별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융합역량이 전공별 차이를 보이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를 양성하는 G지역 대학 내 관련 학과 재학생을 연구대상 범위에 포함시켰다. 연구대상의 일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외변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유아교사로 실습을 마치고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생 유아교육과 76명, 아동보육과 69명, 사회복지과 63명으로 총 208명을 연구대상으로 임의 선정하였다. 학과별로 범주화하고 대상인원을 균형화하여 총 230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지 217부 중 학과별 참여율을 고려하였고, 응답문항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표기된 불완전한 자료를 선별하였다. 부정확한 평정지를 제외한 최종 208명의 검사결과를 반영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예비유아교사 비인지적 역량 측정도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도구를 사용하였다. K-CESA는 비인지적 역량과 인지적 역량으로 구분된다. 비인지적 역량은 자기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이며, 인지적 역량은 의사소통역량,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 종합적 사고역량, 글로벌 역량이 포함된다. 그 중 K-CESA 진단영역별 평가사항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비인지적 역량인 자기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을 측정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자기관리 .94, 대인관계 .94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인정하는 Cronbach α 값의 기준 수치가 .60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었다[20].

Table 1. Evaluation of K-CESA by Non-cognitive Competencies Diagnosis Area

Constituent factor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Self-management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89
	Emotional self-regulation	.86
	Goal-oriented planning and execution capability	.88
	Sense of occupation	.86
	Totally	.94
Interpersonal capacity	Emotional connection	.75
	Cooperation	.88
	Arbitration	.87
	Leadership	.85
	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	.86
Totally	.94	

2.2.2 창의융합역량

김정연의 연구에서 개발된 대학생 창의융합역량을 사용하고자 한다. 하위요인으로는 창의적 능력 11문항, 창의적 성격 11문항, 창의적 리더십 17문항, 융합적 사고 10문항, 융합적 가치 창출 10문항, 총 5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Cronbach α 값의 기준 수치가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었다 [20].

Table 2. Evaluation of Creative Convergence Capabilities by Diagnosis Area

	Constituent factor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Creativity confluence competency	Creative ability	11	.86
	Creative personality	11	.88
	Creative leadership	17	.82
	Confluent thinking	10	.91
	Confluent value creation	10	.83
	Totally	59	.95

2.3 연구절차

본 연구대상과 무관한 일반 대학생 전공계열별 3명씩 총 9명을 대상으로 검사도구의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도구에 대한 문항이해와 객관적인 자기평가에 대한 여부, 문항 내용에 대한 기준이 일치도, 문항 이해에 난해점 등을 살펴본 결과, 검사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본 검사는 예비유아교사 자기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 창의융합역량 검사를 위해 총 5개 학과의 재학생 208명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단검사가 이루어졌다.

2.4 자료분석

예비유아교사 비인지적 역량 및 창의융합역량 검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예비유아교사 비인지적 역량, 창의융합역량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통해 대학생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전공계열별 예비유아교사 비인지적 역량과 창의융합역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K-CESA에 기초한 비인지적 역량, 창의융합역량의 일반적 특성

K-CESA에 기초한 자기관리역량 및 대인관계역량, 창의융합역량의 기초가 되는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았다.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Non-cognitive Competencies and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ies Based on K-CESA (N=208)

	M	SD	Skewness	Kurtosis	Score range	
Self-management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53.36	7.13	.05	.01	27-74
	Emotional self-regulation	49.15	6.36	.21	-.04	27-68
	Goal-oriented planning and execution capability	53.43	8.10	.37	-.03	30-75
	Sense of occupation	56.96	7.29	.32	-.28	34-76
	Totally	212.93	25.63	.30	-.01	124-290
Interpersonal capacity	Emotional connection	34.93	6.72	-.03	.01	12-50
	Cooperation	31.51	5.17	.05	.05	13-50
	Arbitration	36.62	5.31	.21	-.19	18-50
	Leadership	33.42	6.52	.15	.40	10-50
Creativity confluence competency	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	37.96	5.85	.13	-.56	18-50
	Totally	180.46	25.51	.29	.02	85-250
	Creative ability	35.22	5.10	.41	1.18	18-55
Creativity confluence competency	Creative personality	35.61	4.52	.70	1.46	22-55
	Creative leadership	58.69	7.32	.54	.41	32-85
	Confluent thinking	32.08	4.40	.52	2.06	11-50
	Confluent value creation	31.13	4.72	.29	1.77	11-50
	Totally	192.75	22.32	.67	1.73	98-293

K-CESA에 기초한 비인지적 역량 중 자기관리역량은 각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는 49.15~56.96, 표준편차는 6.36~8.10, 왜도는 .05~.37, 첨도는 -.28~.01의 분포를 보였다. K-CESA에 기초한 비인지적 역량 중 대인관계역량은 각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는 31.51~36.62, 표준편차는 5.17~6.72, 왜도는 -.03~.21, 첨도는 -.56~.40의 분포를 보였다. 창의융합역량의 각 하위요인 평균점수는 31.13~58.69, 표준편차는 4.40~7.32, 왜도는 .29~.70, 첨도는 .41~1.77의 분포로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도의 절대값 3, 첨도

의 절대값 8의 기준 내에 속하면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21]. 따라서 본 연구에 나타난 자료는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예비유아교사 자기관리역량의 전공별 차이 분석

예비유아교사의 전공별 자기관리역량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Position Management Competencies of Prospective Infant Teachers by Major

Major	Self-management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motional self-regulation		Goal-oriented planning and execution capability		Sense of occupation		Totality
	M	SD	M	SD	M	SD	M	SD	M	SD	
	Early Childhood Education	54.68	5.41	50.69	5.36	54.84	6.44	58.62	5.75	218.84	
Department of Child Care	52.52	8.58	48.40	7.61	52.67	9.51	56.60	8.61	210.21	31.52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52.89	7.39	48.37	6.10	52.79	8.35	55.67	7.52	209.74	26.14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예비유아교사 핵심역량 중 자기관리역량 전체와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아교육과가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세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관리역량의 전체 (F=3.318,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자기조절(F=2.274, p<.05), 목표지향적 계획수립 및 실행능력(F=3.523, p<.05), 직업의식(F=2.732,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주도학습능력(F=2.117, p>.05)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후분석 결과에서도 자기관리역량 전체와 목표지향적 계획수립 및 실행능력에서도 유아교육과가 높고 아동보육과, 사회복지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유아교육과의 경우 아동보육과, 사회복지과에 비해 자기관리역량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Table 5.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Self-management Capabilities of Prospective Infant Teachers According to their Major

		The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R ²	F	Scheff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between groups	308.657	2	102.886	2.117	
	within a group	9964.224	206	48.606		
	Totality	10272.880	208			
Emotional self-regulation	between groups	322.330	2	107.443	2.274*	
	within a group	8085.287	206	39.440		
	Totality	8407.617	208			
Goal-oriented planning and execution capability	between groups	667.845	2	222.615	3.523*	1)2,3
	within a group	12955.399	206	63.197		
	Totality	13623.244	208			
Sense of occupation	between groups	428.521	2	142.840	2.732*	
	within a group	10719.489	206	52.290		
	Totality	11148.010	208			
Totality	between groups	6351.407	2	2117.136	3.318*	1)2,3
	within a group	130801.789	206	638.058		
	Totality	137153.196	208			

*p< .05

3.3 예비유아교사 대인관계역량의 전공별 차이 분석

예비유아교사의 전공별 대인관계역량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Interpersonal Competencies of Prospective Infant Teachers by Major

Major	Interpersonal capacity		Emotional connection		Cooperation		Arbitration		Leadership		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		Totality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Early Childhood Education	36.79	6.05	38.59	3.93	37.95	4.04	34.75	5.60	39.53	4.38	187.63	
Department of Child Care	32.93	7.82	36.18	6.11	34.90	6.04	32.67	7.05	36.88	6.63	173.57	29.50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35.08	6.29	37.77	5.48	37.00	5.85	32.84	6.90	37.48	6.54	180.18	27.34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예비유아교사 핵심역량 중 대인관계역량 전체와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아교육과가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세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Results of Analysis of Interpersonal Competencies of Preschool Teachers by Major

		The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R ²	F	Scheffe
Emotional connection	between groups	541.062	2	180.354	4.034**	
	within a group	9165.282	206	44.709		
	Totally	9706.344	208			
Cooperation	between groups	208.102	2	69.367	2.626	
	within a group	5415.697	206	26.418		
	Totally	5623.799	208			
Arbitration	between groups	393.886	2	131.295	4.809**	1)2,3
	within a group	5597.090	206	27.303		
	Totally	5990.976	208			
Leadership	between groups	299.107	2	99.702	2.390	
	within a group	8551.668	206	41.715		
	Totally	8850.775	208			
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	between groups	343.992	2	114.664	3.435*	
	within a group	6843.070	206	33.381		
	Totally	71877.062	208			
Totality	between groups	8024.524	2	2674.841	4.214**	
	within a group	130128.356	206	634.772		
	Totally	138152.880	208			

*p< .05, **p< .01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인관계역량의 전체 (F=4.214,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유대(F=4.034, p<.01), 중재(F=4.809, p<.01), 조직이해(F=3.435,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협력(F=2.626, p>.05)과 리더십(F=2.390, p>.05)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후분석 결과에서도 대

인관계역량 중 중재에서 유아교육과와 아동보육과, 사회복지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유아교육과의 경우 아동보육과, 사회복지과에 비해 대인관계역량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3.4 예비유아교사 창의융합역량의 전공별 차이 분석

예비유아교사의 전공별 창의융합역량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ies of Prospective Infant Teachers by Major

Major	Creativity confluence competency	Creative ability		Creative personality		Creative leadership		Confluent thinking		Confluent value creation		Totality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Early Childhood Education		35.26	4.65	36.03	4.44	58.06	6.94	32.35	4.36	30.76	4.85	192.48	21.27
Department of Child Care		36.31	5.19	36.13	4.79	60.42	8.11	32.72	4.17	32.37	4.64	197.96	22.99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34.10	5.47	34.68	4.32	57.58	6.91	31.17	4.67	30.27	4.68	187.82	22.69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예비유아교사 창의융합역량 전체와 모든 하위영역에서 아동보육과가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세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Table 9. Results of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Creative Convergence Capacity of Prospective Infant Teachers by Major

		The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R ²	F	Scheffe
Creative ability	between groups	592.179	2	197.393	7.532***	
	within a group	5372.434	206	26.207		
	Totally	5964.612	208			
Creative personality	between groups	190.918	2	63.639	3.129*	1,2)3
	within a group	4169.130	206	20.337		
	Totally	4360.048	208			
Creative leadership	between groups	929.514	2	309.838	5.721**	
	within a group	11101.682	206	54.155		
	Totally	12031.196	208			

Confluent thinking	between groups	511.312	2	170.437	8.258***
	within a group	4231.157	206	20.640	
	Totally	4742.469	208		
Confluent value creation	between groups	401.298	2	133.766	5.617**
	within a group	4882.387	206	23.817	
	Totally	5283.684	208		
Totally	between groups	11863.522	2	3954.507	7.761***
	within a group	104450.698	206	509.516	
	Totally	116314.220	208		

*p< .05, **p< .01, ***p< .001

Table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창의융합역량의 전체 (F=7.761,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요 인별로 살펴보면 창의적 능력(F=7.532, p<.001), 창의적 성격(F=3.129, p<.05), 창의적 리더십(F=5.721, p<.01), 융합적 사고(F=8.258, p<.001), 융합적 가치창출 (F=5.617,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에서는 창의적 성격에서 유아교육과, 아동보육과와 사회복지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유아교육, 아동보육과의 경우가 사회복지과에 비해 창의적 성격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K-CESA에 기초한 핵심역량 중 자기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 창의융합역량이 전공별 예비유아교사 간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CESA의 자기관리역량은 전공별 예비유아교사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유아교육과가 아동보육과와 사회복지과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특히 자기관리역량 전체와 하위요인 중 목표지향적 계획수립 및 실행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유아교육과가 더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과정에서의 목표, 계획수립 및 실행하기 위해 자신과 자원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유아교육과가 명확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보육과와 사회복지과에서도 교육목표, 계획수립 및 실행능력을 강화하는 데 교육과정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해정, 유은정의 연구결과에서도 예비유아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과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22]. 이를 근거로 자기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해 예비유아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내에서 수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모의수업 등을 통해 실행해보며 교수자-학습자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여러 교과목에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K-CESA의 대인관계역량은 전공별 예비유아교사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유아교육과가 아동보육과와 사회복지과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특히 대인관계역량 하위요인 중 중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유아교육과가 더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과정에서의 중재능력이 유아교육과가 능숙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의견 또는 갈등을 토론이나 타협을 통해 조정,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 또한 아동보육과가 사회복지과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인 것에 주목하면 대인관계에 필요한 정서적 유대, 협력, 조직에 대한 이해 등을 집중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백종남, 김수란의 연구에서도 중요한 미래 교사역량으로 대인관계역량을 실천 차원의 기초역량으로 제시하였고[23], 대인관계가 좋은 교사가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관계 형성과 교수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김현수, 정혜영은 유아교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에서 유치원 교사는 의사소통이, 어린이집 교사는 신체건강이 출현빈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4]. 김영은은 유아교사의 직무와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데 인성교육이 중요하며 긍정적 자아개념, 성실함, 책임감, 정서적 안정, 타인에 대한 긍정적 사고 등 비인지적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26].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융합역량은 전공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창의융합역량 중 창의적 성격은 유아교육과와 아동보육과가 사회복지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핵심역량의 비인지적 요소가 창의적 교사역량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한 이수영, 김성식, 최단비의 연구결과[17]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창의융합역량은 실천 차원의 직무역량으로 창의적 수업설계 역량, 교육과정 개발 역량, ICT 콘텐츠 개발 역량이 미래사회에 주요 교수능력을 제시하였으며, 미래 교사에게 다양한 학문적 기술적 융합을 통해 사고력과 수업설계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22].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비유아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교사의 비인지적 역량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인 자기관리 및 대인관계 향상에 주목해야 하며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강화 비교과프로그램에도 창의적 성격을 개발하는 교육목표가 반영되어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김성재, 황지애에 의하면 현장교육전문가들이 인식한 핵심역량의 중요도 수준도 자기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을 지목하였고, 예비유아교사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핵심역량이 대인관계, 자기관리이었다[25]. 김영은의 연구에서도 교사의 전문적인 직무 수행능력 향상과 자질을 배양하는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사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26]. 김현수, 정혜영도 핵심역량과 관련하여 인내심, 사랑, 인성, 긍정성 등 교직 인성과 관련된 개념의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치원 교사는 의사소통과 사랑에 모든 중심성이 편중되어 있었던 반면 어린이집 교사에게서 상호작용, 신체건강, 영유아발달이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24].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예비유아교사의 비인지적 역량 강화가 강조되어야 함을 보여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핵심역량 중 자기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 창의융합역량은 미래교사 역량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인지적 요소로서 대인관계, 자기관리, 창의적 성격을 향상시키는 교과과정이 개발되고, 비교과 과정이 연계되어 다각적인 교육접근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예비유아교사의 핵심역량과 교직 전문성 간에 밀접한 관련성을 제기하면서 역량 개발 및 실제적인 교육 실습 프로그램을 강조하였다[27]. 예비유아교사들은 학습자 이해와 교육과정 운영 역량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지만 역으로 대인관계, 의사소통 역량, 정보화역량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아지는 연구결과[28]에 비추어본다면 이를 위해 교사 역량교육의 필요성과 커리큘럼의 혁신을 위해 정규 교과목과의 융합을 시도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과 시간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검사를 위해 일반화된 K-CESA에 기초한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을 진단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인지적 역량으로 종합적 사고력과 의사소통역량, 글로벌역량,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도 진단하여 전체적 핵심역량을 두 가지 관점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K-CESA에 기초한 핵심역량의 일반화를 고도화시키고 교사 전문성과 놀이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창의적 인성, 창의융합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효율적인 전공교육과 진로결정에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대인관계역량, 자기관리역량, 창의융합역량을 진단하였다. 그러나 역량을 강화하는 교과 및 비교과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강화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혁신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예비유아교사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교양교과목이나 비교과프로그램의 운영과 그 효과를 증명하는 추후 연구를 제안하고, 전공별로 강화해야 할 맞춤형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를 밝히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일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외변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G지역의 대학 내의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연구의 일반화를 확보하기 위해 무선표집의 대상을 전국 지역으로 균형 있게 확대 조사하여 그 타당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 [1]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 Study on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University Support Office. 2013.
- [2] OECD,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Paris: OECD Press. 2005.
- [3] S. H. Kim, & J. J. Kim, "The influences of child-care teacher's teaching competency and the state of flow on teacher-child interactio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1, No.3, pp.1-23, 2018. DOI: <https://doi.org/10.15409/riece.2019.21.3.1>
- [4] H. H. Kim,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core competencies on teacher-young children interaction." The master's thesis on Graduate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Chung-Ang University, 2018.
- [5] S. M. Lee,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core competencies on teacher-child interaction." The master's thesis 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9.
- [6] Ministry of Education, "Based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Enhancement Project 10." The Need for Capacity Building and by a kindergarten teacher the life cycle of use, 2010.

- [7] B. C. Kim, "Korean Teachers' Education Policy and System Reflections." *Journal of the Korean Teachers' Education Association*, Vol.2018, No.08, pp.109-140, 2018.
- [8] N. G. Park, "New Paradigm for Education Reform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55, No.1, pp.211-240, 2017.
- [9] J. R. Ahn, "The Stud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Understanding in "Teacher Competence."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9, No.2, pp.245-263, 2017.
- [10] K. Y. Kwon, "Education at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Role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Research*, Vol.18, No.4, pp.47-72, 2018.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8.18.4.47>
- [11] B. B. Kim, & H. S. Park, "Researching Competencies of Daycare Center Teachers."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7, pp.147-167, 2017.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7.17.7.147>
- [12] J. H. Park, H. S. Cho, & J. S. Yeom,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 of early childhood teacher on kindergarten teacher core competency."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5, No.1, pp.165-188, 2014.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14.34.5.010>
- [13] T. J. Kim, "International Trends in Creative Personality Educ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Non-Cognitive Competencies". *Korean Educational E|Development Institute*, Vol.12, No.4, pp.1-42, 2015.
- [14] M. Chappel, & S. Nye, "Nevada' core knowledge areas and core competencies for early care and education professionals." Reno, NV: The Nevada Registry, 2007.
- [15] NCCIC. "Early Childhood professional development systems toolkit." 2009.
- [16] C. W. Nam, Y. H. Park, & J. H. Song,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Definite Core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by Series and Grade." *Journal of Accident Development*, Vol.12, No.3, pp.91-118, 2016.
- [17] S. Y. Lee, S. S. Kim, & D. B.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e Teacher Competencies and K-CESA Core Competencies of Pre-primary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re Competency Education*, Vol.-, No.2, pp.251-274, 2015.
- [18] S. A. Lim, "Exploring of the Perception about the Compet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in Play-oriented Curriculum." *The Journal of Teachers' Education Research*, Vol.37, No.4, pp.209-226, 2020.
- [19] J. Y. Park, & Y. S. Kim,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K-CESA and adult playfulnes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21, pp.207-223, 2020.
- [20] J. J. Song, "Statistical Analysis / Amos SPSS is needed to produce paper." Seoul: 21st Century History. 2010.
- [21]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2011.
- [22] H. J. Lee, & E. J. You, "The Effect of Flipped Learning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Teacher Competency of Pre-infant Teacher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1, No.6, pp.3267-3280, 2020.
- [23] J. N. Back, & S. L.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Future Teacher Competency Diagnostic Scale for Pre-service Teachers." *The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11, No.2, pp.331-339, 2020.
- [24] H. S. Kim, & H. Y. Jung, "Exploring early childhood teachers' understanding of core competencies through network analysi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6, No.5, pp.135-158, 2016.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16.36.5.006>
- [25] S. J. Kim, & J. A. Hwang, "Study on improvement in the early childhood teacher nurture curriculum through diagnosis of core competences of pre-service teachers before graduation, analysis of importance of core competences recognized by field early childhood education specialis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re Competency Education*, Vol.-, No.4, pp.171-210, 2018.
- [26] Y. E. Kim, "A Basic Study on Character Education to Strengthen the Job and Core Competencie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7, No.3, pp.47-66, 2017.
- [27] H. Ko, & J. H. Na, "An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Perception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Core Competency and Teach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Pre-service Teachers."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8, pp.197-220, 2018.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8.18.18.197>
- [28] Y. S. Park, & H. L. Lee, (2016). "The educational needs assessmen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n core competencies by grade level."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1, No.1, pp.343-366, 2016. DOI: <https://doi.org/10.20437/koaece21-1-14>

박 지 영(Ji-Young Park)

[정회원]



- 2012년 2월 : 전남대학교 교육학 박사
- 2009년 3월 ~ 2010년 2월 : 전남대학교 BK사업단 연구원
- 2014년 3월 ~ 2021년 12월 : 서정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문학, 유아교사교육, 유아교육평가

김 용 숙(Yong-Sook Kim)

[정회원]



- 2004년 8월 : 한남대학교 교육학 박사
- 1996년 3월 ~ 2002년 2월 : 우석유치원·어린이집 원장
- 2002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과정, 유아사회교육